

국힘 혁신위 “지도부·친윤, 불출마 또는 수도권 나와라”

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숫자 감축·세비 삭감 등 4개항 의결 민주 고강도 쇄신안에 촉각...여야 혁신 경쟁 불 붙을지 관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인적 쇄신’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있어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인 위원장이 제시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협지 출마 제안이 실현되면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하고, 여당 내에서 30~4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당달아 깊어질 수 밖에 없어 여야 모두 인 위원장의 파격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4차 회의를 한 뒤가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걸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과거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하는 분들은 많은 이득을 받았는데, 이제는 국민에게 모든 걸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리서 희생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국회의원 희생을 키워드로 한 ‘2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전면 박탈 및 본회의·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4개항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숫자를 현재 300명에서 270명으

로 10% 감축하는 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당과 협상하게 된다.

또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공천 신청 시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책정해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도록 했다.

또 혁신위는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한 뒤 하위 비율 20%에 대해선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쏟아 올린 고강도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는 3선 이상 의원의 동일 지역구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을 우려해 공식 혁신안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대신 김 위원장 개인의 권고 형태로 “다선 용퇴”를 제안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를 비롯한 다선 용퇴론이 다시 화두에 오르더라도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앞서 ‘장경태 혁신위’에서도 이 같은 논의는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국민의힘 혁신위가 파격 혁신안을 내놓으며 총선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준석 못 만나고 떠난 인요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만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4%...일주일만에 1%p 올라

갤럽 조사...국힘 34%·민주 3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34%였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10월 24~26일) 때 33%보다 1%p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58%로, 지난주와 같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33%), ‘결단력/추진력/혁신’,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5%), ‘경제/민생’(4%),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 ‘서민 정책

/복지’(이상 3%) 등이 거론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20%), ‘소통 미흡’(8%), ‘외교’(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단적/일방적’, ‘통합·협치 부족’(이상 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서민 정책/복지’(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p 하락했고, 민주당은 1%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7%로 1%p 떨어졌고, 정의당은 5%로 1%p 올랐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추진...경영 개선 아낌 없이 지원할 것”

“범부처 물가관리 TF 가동”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 남아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

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는 점을 언급,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및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원 예산안 반영 등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책들을 소개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외적 변수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활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서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주요 식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고, “모든 정부 부처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은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라며 “국민의 힘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오늘 첫 회의

의사확충·수가인상 등 논의

외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

료 분야 보충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안정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패키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운·이태규·송연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윤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TF 첫 회의는 임명장 수여식 후 윤재욱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TF 발족을 알리며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나를 움직이는 진실
세상을 움직이는 신문

균형을 잡는 일은 어렵습니다.
진실을 가려내고 밝히는 일도 어렵습니다.
균형잡힌 보도와 진실된 정보를 통해
신문이 당신과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